주간 보험 동향

2001.6.11	동향분석팀	제85호

1. 금주의 Highlight

◆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방안

2. 금융동향

◆ 금리 : 전주대비 0.05%p 하락

◆ 환율 : 원/달러 하락, 엔/달러 상승

◆ 주가 : 전주대비 2.4% 상승

3. 보험산업 동향

◆ 생보사 지급여력비율 개선

◆ 보험사 상품개발 추이 급변

◆ 미국/ 인터넷을 통한 대리인과 보험사의 업무교류 확대

◆ 2000년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RBC비율

◆ 코닝사, 새로운 보고서 발간 “생명보험회사 웹사이트 평가 : 풍부한 기회”

◆ 프린시펄(Principal)사, 주식회사 전환계획 제출

◆ Tillinghast, 파이낸셜 프로젝션 소프트웨어 발표

◆ 일본, FY2000 생보사 주요실적

KIDI 보험개발원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1. 금주의 Highlight :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방안

□ 정부는 하반기에 만기도래가 집중되는 투기등급채권(신용등급 BB+이하)을 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발표했음.

- o 금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투기등급 채권의 규모는 약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하반기 회사채만기 집중에 따른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높은 상황임.
- o 대우사태 이후 투기등급채권의 발행과 유통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고, 산업은행의 회사채신속인수제도도 금년 말로 종료되므로, 채권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 허용, 고수익채권투자를 대행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 도입을 골자로 하여 채권자보호제도 강화와 함께 신용평가제도 개선 및 채권정보관리체제 구축 등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 o 고수익채권에 30%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설립하고, 2002년 말까지의 가입자에 대해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부여함.
- o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신 운용해 줄 수 있는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고수익채권에 30%이상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함.
- o 주식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발행 활성화를 위해 BB+이하 등급 기업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시 현행 가격기준에서 10% 할인발행을 허용하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경우 자유로운 전환가격 설정을 허용함.

□ 정부는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와 CBO채권 발행을 통해 하반기 회사채 만기 도래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o 경기회복과 병행될 때 해당 채권투자에 따른 높은 수익이 기대되지만, 비과세혜택에 따른 1.5%p의 수익률제고, 투기등급채권 30%이상 편입한 일임형 랩어카운트 등이 얼마나 투기등급 채권수요를 확대시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함.

2. 금융동향

□ 금리

- 회사채 금리는 바닥권 인식 확산에 따른 조정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한은 총재의 경기회복 지연 발언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며 매수세가 강화되어 주말 하락세로 반전. 전주대비 0.05%p 하락.
- 국채 금리도 전주대비 0.05%p 하락.

주요 채권금리 추이

(단위 : %)

구 분	4일	5일	6일	7일	8일	전주대비
회사채	7.32	7.42	-	7.42	7.30	-0.05%p
국 채	6.11	6.23	-	6.23	6.10	-0.05%p

□ 환율

- 원화는 닛케이 지수 급락에 따른 엔/달러 상승, 결제수요 증가 및 외국인 주식자금 역송금 수요 등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주후반 엔화에 연동되며 소폭 강세로 반전.
- 엔화는 Shiokawa 재무장관의 약세 선호발언과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감 대두로 약세를 보이다가 주후반 이후 큰 변화없이 약보합속 횡보 장세 시현.
- 유로화는 예상보다 하락한 유로지역 Business Climate Index 발표로 약세를 보이다가 주후반 美 고용사정 저조발표와 블레어 英 수상의 재선 기대에 힘입어 강보합세 시현.

주요 환율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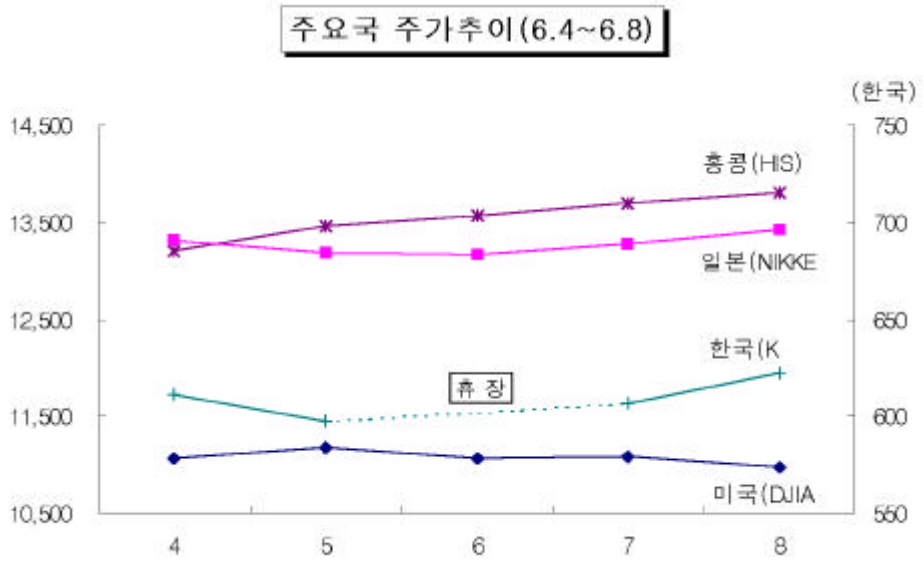
구 분	4일	5일	6일	7일	8일	전주대비
원/달러	1,286.00	1,286.70	-	1,286.10	1,284.70	-0.70
원/100엔	1,076.60	1,076.29	-	1,069.97	1,069.25	-11.83
엔/달러	119.25	120.25	120.23	120.16	120.69	+1.44
달러/유로	0.8464	0.8544	0.8485	0.8505	0.8505	-

□ 주식시장

- 금주의 주식시장은 국제유가 상승, 반도체가격 하락과 함께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의구심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주말께 재계의 2단계 구조조정 소식과 한은총재의 내달 콜금리 인하 시사발언, 삼성전자 등 반도체관련주의 약진, 美 나스닥선물지수 급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반전.
- 금주의 종합주가는 전주대비 2.4% 상승.
-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반도체 업체의 긍정적 실적 전망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휴렛팩커드, JP모건 체이스의 실망스런 실적 전망, 인터넷 장비업체의 매출 저하 공시로 경기둔화세 속에 전반적인 기업 수익 악화 가능성이 대두되며 하락세로 반전. 전주대비 0.1% 하락.
- 일본은 1.3% 상승.
- 홍콩은 5.1% 상승.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구 분	4일	5일	6일	7일	8일	전주대비
한 국(KSX)	610.94	597.66	-	607.07	621.78	+14.71
미 국(DJIA)	11,061.52	11,175.84	11,070.24	11,090.74	10,977.00	-13.41
일본(NIKKEI)	13,312.35	13,182.00	13,174.84	13,277.51	13,430.22	+168.38
홍 콩(HIS)	13,207.49	13,451.87	13,576.01	13,703.43	13,808.89	+670.17



3. 보험산업동향

□ 생보사 지급여력비율 개선

- FY2000 국내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집계한 결과 대한생명과 대신생명을 제외한 10개 생보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생보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된 것은 지난해 말에 비해 주가가 올라 주식평가손을 줄인데다 사업비 절감, 증자 등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2004년까지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강화되고 저금리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보험사별로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영풍생명이 6480%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생명이 지난 연말보다 31.32%p 향상된 670.8%를 기록함.
- SK생명은 후순위 차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을 316.4%로 끌어올렸으며, 신한생명도 3월말 500억원 증자로 264%로 끌어올림. 또 교보생명은 지난해말 169%에서 296.5%, 동부생명은 174%에서 210.5%, 흥국생명은 158%에서 182%,금호생명은 113%에서 164%로 높였음.

□ 보험사 상품개발 추이 급변

- 금감원에 의하면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방향이 종신보험과 특종보험 등 보장성상품 위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생보사 경우 지난 3월말 현재 판매중인 보장성 상품은 총 343개로 지난해말 291개에 비해 50개 이상 증가한 반면 연금형 상품은 44개로 20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음.
- 또 손보사는 가계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등 특종보험의 개발 증가로 지난 3월 현재 510개의 특종보험을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생보사들의 경우 연금보험에서 종신보험으로, 손보사들은 장기손해보험에서 단기특종보험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며, 이 같은 변화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철저한 손익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품구조를 바꾸려는 보험사들의 노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이와 함께 생보사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개발에 주력하여 올 들어서만 377개의 특약을 개발했으며, 또한 손보사들은 장기손해보험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서 특종보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또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공적건강보험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료비 보장부분을 보완하는 민영의료보험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 인터넷을 통한 대리인과 보험사의 업무교류 확대

- 2001 미국의 대리인/ 브로커 조사에서 대리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보험회사와의 업무 수행에 관련된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94%의 응답자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작년의 89%, 재작년의 74%에 비해 이용률이 높아졌고 84%의 응답자가 매일 접속하고 있어 작년의 71%, 재작년의 49%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8%는 적어도 2 3일에 한번 접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 보험사들은 대리인의 인터넷을 통한 업무 수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에서 76%의 응답자가 보험사와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작년의 50%와 재작년의 33%에 비해 상당 수준 높아짐.
- 지난 2년간 보험사 웹사이트는 대리인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까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지향하는 온라인 증식을 보였으며 대리인 또한 응답자의 44%가 그들 고유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작년의 37%, 재작년의 30%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웹사이트를 아래와 같은 목적에 사용한다고 보고함.
  - 95%는 대리점에 일반 정보 제공.
  - 52%는 자문을 구하는 데에 사용.
  - 50%는 방문자로부터 시세정보를 구함.
  - 35%는 방문객을 중요한 다른 사이트로 연결시킴.
  - 25%는 고객에게 위험관리 정보를 제공.
  - 19%는 실시간 시세정보 제공.
- 또한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 중 44%가 올해 안에 구축

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짐.

□ 2000년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RBC비율

- Townsend & Schupp 사의 LIBRA(생명보험사업 리스크분석) 평가보고서(Annual Review)에 따르면 상위 130개의 보험사(자산 기준 미국 생보산업의 85%)의 RBC비율이 2000년도에 평균 278%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였음.
- 130개사 중 120개사가 5년 연속으로 RBC비율의 기준이 되는 200%를 넘었고, 그중 93개사는 250%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고, 300%를 넘긴 회사도 4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130개사 중 RBC비율 125%를 하회할 때 취해지는 규제차원의 조치(regulatory action)에 해당되는 보험사는 하나도 없었음.
- 2000년 RBC비율이 200%를 하회하는 회사가 8개에 불과하며, 이중 5개사는 건강보험회사인 것으로 나타남.

□ 코닝사, 새로운 보고서 발간 "생명보험회사 웹사이트 평가 : 풍부한 기회"

- 금융산업 전문 리서치 기관인 코닝사(Conning & Company)는 최근 생명보험회사의 웹사이트전략을 분석한 보고서 "Life Insurer Web Site Assessment : Opportunities Abound"를 발간했음.
- 보고서에서 코닝사는 생명보험산업에서 모집조직을 통한 대면판매전략에 대한 집착이 소비자지향의 웹사이트 구축과 발전을 가로막아왔다고 분석함.
- 코닝사는 소비자지향의 웹사이트가 모집조직의 보험판매를 증가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함.
  - 많은 생보사 사이트에 창조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해서 생보상품은 파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이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했던 것임.
- 많은 보험사들이 웹사이트를 웹상의 소매판매점을 설치하는 곳으로 만

들어 왔을 뿐 그들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곳으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또한 자신의 웹사이트를 다른 생보사들의 그것과 비교했을 뿐 타 금융기관 사이트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음.

- 생보사들은 모집조직의 역할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소매 웹전략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모집조직을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발전시킬 기회를 놓쳤음.
  · 생보사들은 웹사이트를 교육적 도구로 활용하여 모집조직의 근접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임.
- 코닝사의 보고서는 생보사의 웹사이트들을 4개의 보험종목(개인생명보험, 개인연금, 단체생명보험, 단체연금)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평가는 웹사이트를 그들의 사업에서 나오는 새로운 목표의 성취를 위해 사용하는 전반적인 능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
-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아직까지 그들의 소매 웹사이트를 전반적인 사업전략에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잡고 씨름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본적인 기능과 내용의 측면에서 발전을 달성해야 할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웹사이트 역량을 활용하여 높은 성취를 이룰 기회를 얻은 보험회사는 소수에 불과함.

□ 프린시펄(Principal)사, 주식회사 전환계획 제출

- 미국의 대형 보험사의 하나인 프린시펄사가 아이오와 주 보험청에 주식회사 전환계획을 제출함으로써 미국보험사의 탈상호회사화 흐름에 합류함.
  · 최근 주식회사 전환계획을 제출한 회사로는 푸르덴셜, Phoenix Home Life 등이 있음.
- 프린시펄사는 주식회사 전환에 따라 유자격 보험계약자에게 최소한 100주 이상의 주식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들은 현금 또는 주식을 받을 선택권을 가지게 됨.
- 주식회사 전환과정에서 회사는 분리계정을 만들어 중소기업주가 퇴직플랜의 세제적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임.
  · 프린시펄사는 미국 최대의 401(k) 플랜 상품 제공회사의 하나임.
- 첫 번째 공청회는 7월 5일로 계획되어 있음.

□ Tillinghast, 파이낸셜 프로젝션 소프트웨어 발표

- 위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Tillinghast-Towers Perrin은 재정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인 TAS: P/C 2001을 발표했으며, 이것은 위험관리상품과 서비스의 RiskValueInsights(TM) 세트의 중요한 구성요소임.
- 재산/상해(property/casualty) 보험회사가 위험을 관리하고, 가치 창조 측정을 돕도록 고안된 TAS: P/C 2001은 자본 시장과 보험시장 환경하에서 완전히 통합된 자산과 부채 모델링으로 시나리오 테스트를 수행하는 재정 프로젝션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동 시스템은 대체 투자, 재보험과 언더라이팅 전략하에서 회사의 자본과 수익의 탄력성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Tillinghast의 상품과 서비스개발의 국제부문 부서장인 Stephen Lowe는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젼이 현재의 고객과 가망 고객에게 매우 유용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그들이 직면한 위험을 좀더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파이낸셜 모델링 능력을 개선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함.

□ 일본, FY2000 생보사 주요실적

- 일본의 10개 생보사의 FY2000 결산 결과 개인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의 보유계약금액이 富國(후코구)生命을 제외한 9개사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2.9% 감소한 1,192조 4,637억엔으로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또한, 10개사의 기초이익(금년부터 공시하는 재무건전성 관련 신지표로 영업이익에 해당됨)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초저금리에 의한 자산운용 부진으로 약 1조 3,000억엔의 역마진이 발생하였음.
- 10개 생보사중 보유계약금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三井(미쯔이)생명과 朝日(아사히)생명의 경우 전년대비 5.1%, 4.0%감소하였으며, 明治(메이지)생명의 경우 「라이프 어카운트 LA」 상품의 호조로 신계약금액이 13조 3,610억엔으로 전년대비 55.2% 증가하였음.
- 일본 생보사의 보유계약금액의 부진은 전년도 5개 보험사의 연쇄파산과 경기침체에 대한 영향으로 해약 및 실효 등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